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에 관한 연구 - 2012 S/S~2016 F/W 국외 컬렉션을 중심으로 -

박효주 · 김미영^{1)†}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¹⁾명지전문대학 뷰티아트과

A Study on the Maximalism in the Contemporary Men's wear - Focus on International Collections in 2012 S/S~2016 F/W -

Hyoju Park, and Miyoung Kim^{1)†}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¹⁾Dept. of Beauty Art, Myongji College; Seoul, Korea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sign of men's wear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expressing maximalism in men's wear collection and contribute to the field of men's wear fashion which expects new, original, and experimental fashion styles to be created. When it comes to research contents, this study first identifi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 of maximalism in such fields as literature and art and based on this, makes a case study of men's wear fashion designs shown in men's wear collection and then understands the type of characteristics of expressing maximalism and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its expressive method in men's wear design.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xpansion* referred to the extreme avant-garde that changed the concept of fashion design by expanding clothes or accessories or exaggerating silhouettes. Second, *fanciness* continued to appear as a tool to use the luxurious decorations that applied fancy handicraft techniques and express the world of original design. Third, *fusion* represented the expression of various charms from one work without making any classifications between the tradition and the present and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Fourth, *fantasy* indicated the expression of surrealistic images by expressing the unbounded imagination through creative ideas.

Key words : maximalism(맥시멀리즘), men's wear(남성복), expressive characteristics(표현특성)

1. 서 론

현대 패션은 새로운 가치관과 미의식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과도함과 극단의 추구 경향인 맥시멀리즘(maximalism)은 왜곡, 변형, 과장 등의 요소들을 혼합하여 복잡함을 매치시키는 방법으로 현대적, 도시적 감성의 미니멀리즘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추구경향이다. 패션에서도 과장된 장식과 전위적인 조형성, 유희성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선보이며 수많은 변화와 다양한 감성이 공존하는 오늘날의 패션계에 맥시멀리즘적 시도는 기발함과 독특함으로 무장하여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제공한

다(Lee & Roh, 2012).

관련 선행연구로는 맥시멀리즘과 복식에 관련하여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에 관한 연구(Kang, 2015)와 장 폴 고티에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Lee & Roh, 2013),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의 비교 미학적 연구(Park, 2012) 등이 있으나 모두 여성복과 관련된 것으로 남성복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남성들은 패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표현하려 하며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이라는 패션에 민감한 남성들을 뜻하는 용어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남성들이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분방하고 개성을 표현하는 스타일에 관심이 모아지고(Yoo et al., 2015), 남성복 컬렉션에서도 복잡하거나 모호한 이미지의 전위적인 구성 라인, 과도한 장식적 요소와 형태, 시각적으로 매우 여성적인 풍부한 디자인 경향들이 등장하고 있어(Kim & Yoo, 2015) 이를 반영한 남성복 디자인의 맥시멀리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Corresponding author; Miyoung Kim
Tel. +82-2-300-3882

E-mail: big3pearl@hanmail.net

© 2016 (by) the authors. This article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의 표현 특성을 유형화하여 남성복 디자인을 연구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새로운 패션 스타일의 창조로 남성복 패션 분야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맥시멀리즘 개념과 표현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컬렉션에 나타난 남성복 패션디자인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남성복 디자인의 맥시멀리즘의 표현 특성 유형과 그 표현 방법의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패션디자이너로는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특성을 지닌 디자이너 톰 브라운(Thom Browne), 월터 반 베이렌도크(Walter Van Beirendonck), 준 제이(Jun J), 케이티제트(KTZ),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릭 오웬스(Rick Owens) 등의 컬렉션을 통해 수집한다. 본 연구는 파리, 뉴욕, 밀라노, 런던 등의 맨즈 웨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현대 패션은 컬렉션의 의상 뿐만 아니라 토탈 코디네이션을 통해 디자인을 완성함으로 가방, 신발, 모자와 액세서리와 같은 패션 제품도 연구대상 안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분석 자료는 2012년 S/S부터 2016년 F/W까지 최근 5년간으로 한정하며 컬렉션에서 발표된 작품들 중 맥시멀리즘 요소의 영향을 받은 스타일과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퍼스트뷰(www.firstview.com), 보그(www.vogue.com), 보그브리티시(www.vogue.co.uk)의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된 컬렉션별 디자이너의 의상 이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2. 맥시멀리즘 패션의 이론적 고찰

2.1. 맥시멀리즘의 개념과 발생 배경

맥시멀리즘은 최대주의, 최대지향주의, 극대주의 등의 의미를 지니며 ‘미니멀(minimal)’의 반대어가 되는 형용사 ‘맥시멀(maximal)’에 명사, 주의, 학설, 이즘(doctrine)을 뜻하는 접미사 ‘ism’이 붙여 형성된 단어(“Maximalism”, n.d.)이다. 예술의 역사에서 맥시멀리즘이란 명칭의 사조가 나타난 적은 없으나 1980년대에 문학비평에서 맥시멀리즘 용어와 특징이 아우러진 적이 있으며 1990년대 말 이후 건축과 디자인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패션에서도 논의되고 있다(Park, 2008). 즉, 맥시멀리즘의 개념은 패션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문화적 차원에서도 나타나며 60년대 팝, 70년대 펑크, 혹은 로코코나 바로크 양식의 건물, 세계정부의 최대한론 등에서 극대주의, 과장 등의 단어로 의미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립되지 않은 채로 반영되고 있다(Kim, 2007).

21세기가 되면서 맥시멀리즘이란 용어는 보다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여 디자인 관련 기사 등에서 언급되었고, 음악, 그래픽과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Park, 2008). 문학에서의 맥시멀리즘은 ‘빅 북(big book)’이나 ‘토탈 소설(total novel)’ 또는 ‘메가 소설(mega novel)’ 등의 여러 명칭으로 불리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백과사전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고, 회화에서의 맥시멀리즘은 같은 이미지의 반복적 대량생산과 대중적 이미지를 복사, 사용하는 기법으로써 자극

적이며 선명한 효과에 의한 강조 등으로 나타났으며, 건축에서의 맥시멀리즘은 상이한 양식 요소들의 결합으로 통하여, 육중함, 풍만함, 다양함, 화려함, 역동적 효과, 과도함의 추구경향으로 나타났다(Kim & Kim, 2011). 패션에서의 맥시멀리즘은 1960년대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크리스티앙 라크루아(Christian Lacroix)에 의해 자신의 매우 화려하여 장식적이며 이국적 패션을 가리켜 맥시멀리즘이라고 언급한 이후 단순하고 절제된 미니멀리즘의 개념과는 반하여 사용되어졌으며,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 현상’으로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정치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방면에 걸쳐 널리 쓰이고 있다(Lee, 2008).

즉, 맥시멀리즘은 현대화로 인한 개인집중현상으로 남과 다른 개성을 추구하고 개인의 특성을 중시여기는 경향으로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됨에 따라 독창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의 개발이 되었다. 이러한 과감한 자기표현 경향은 간결하고 정돈된 미니멀리즘 이미지의 패션계에 신선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맥시멀리즘 패션의 형성 배경이 되었다(Lee & Roh, 2012).

2.2. 맥시멀리즘 패션의 디자인 요소와 표현 유형

2.2.1. 맥시멀리즘 패션의 디자인 요소

의복은 선, 형태, 색, 재질, 디테일 등에 대한 개별의 지각이 하나로 통합되어 전체적인 의복 이미지를 형성하므로 이런 시각적인 조형 요소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이 상호관련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Kim & Lee, 2000)하며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루엣

맥시멀리즘에서 나타나는 실루엣은 아우어글래스 실루엣, 스트레이트 실루엣, 벌크 실루엣이다.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은 허리 부분을 꼭 끼게 하고 상부와 하부는 벌어진 형태를 말하며, 프린세스 실루엣, 피트 앤 플레어 실루엣, 버슬 실루엣, 크리놀린 실루엣, 머메이드 실루엣, 미나렛 실루엣으로도 표현된다. 스트레이트 실루엣은 수직에 가까워서 몸의 굴곡을 드러내지 않은 직선의 외곽선을 말하며 시스 실루엣, 박시 실루엣, 엠파이어 실루엣, 튜블러 실루엣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벌크 실루엣은 허리부분이 풍성하고 상하로 좁아지는 형태를 말하며 에그 실루엣, 배럴 실루엣, 벌룬 실루엣, 텐트 실루엣, 트라페즈 실루엣이 있다(Jeong & Jung, 2009).

2) 소재

맥시멀리즘에서 나타나는 소재는 힘이 있어서 뻣뻣한 느낌을 주는 하드한 소재, 부드럽고 가볍고, 따듯하고, 유연한 느낌을 주는 소프트한 소재를 사용한다. 또한 만짜이는, 빛나는 느낌의 클리터링 소재, 비치어 보이는 느낌의 트랜스페어런트 소재로 표현되고 있다(Jeong & Jung, 2009). 특히 수공예적 표

현을 위한 레이스, 스톤 등의 부자재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며, 의상의 소재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실험적 소재를 통해 맥시멀리즘 패션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Lee & Roh, 2013).

3) 무늬

맥시멀리즘에서 나타나는 무늬는 기하학적, 추상적, 무지, 사실적, 양식화로 나눌 수 있다. 기하학적 무늬는 점, 선, 면, 원 등의 기하학적인 모티브를 이용하여 현대적인 감각으로 만들어 지 것으로 스트라이프, 체크, 도트 무늬 등으로 표현된다. 추상적 무늬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기하학적인 형태가 아닌 디자이너의 주관과 감각의 의해 표현된 형태로 그래피티, 유틸리티, 사이키델릭으로 나타난다. 무지는 무늬가 없는 것을 말하며, 사실적 무늬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 등의 생물과 자연 현상, 인공의 물체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꽃, 자연, 트로피컬, 동물, 인공물 등으로 표현된다. 양식화 무늬는 대상물의 형태를 간결하게 생략하거나 평면적으로 변화시켜 단순화

한 것이다(Jeong & Jung, 2009).

2.2.2. 맥시멀리즘 패션의 표현 유형

현대에는 ‘나’를 중심으로 한 개인집중현상의 라이프스타일이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이전보다 차별적이고 독특한 상품들이 끊임없이 출시됨에 따라 디자인에 대한 발상전환을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고, 다양성과 변화를 추구하는 미학적 경향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큰 것이 아름답다’라는 맥시멀리즘의 궁극적 심미성은 과장, 복잡, 화려, 다양, 섬세, 혼합 등으로 각각 표현되거나 서로 조합되어 표현되고 있다(Kim & Lee, 2011).

맥시멀리즘 패션의 표현 유형과 디자인 요소에 대하여 Park(2008)은 다양한 시대와 문화, 이미지의 혼합과 다양한 소재의 혼합사용, 예술 작품 같은 액세서리나 부분 디테일, 텍스타일을 사용하는 퓨전성, 과장되고 거대한 형태, 과장된 디테일, 복잡한 재단이나 구성 형태, 무늬와 색상의 복잡하고 과도한 혼합인 확대성, 럭셔리한 장식, 과한 장식, 많은 시간이 투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ximalism expressed in fashion

Researchers	Characteristic	Method of expression
Park(2008)	Fusion	Various period and culture, mixed image, mixture of materials
	Enlargement	Exaggerated shape, detail, complex structure, intricate patterns and colours
	Decoration	Excessive decoration, handicraft invested a lot of time
	Fantasy	Impractical imagination, maximum image, surrealistic image
Jeong & Jung (2009)	Exaggerated	Emphasis, deformation, distortion, design of exaggeration
	Multi-ethnic	Regression, contemplation for the tradition
	Futurelism	Futuristic design, uniqueness of material, peculiar atmosphere of headdresses
	Elegance	A loud color and decoration
	Romantic	Exaggerated details, decoration
Kim & Kim (2011)	Expansion	Expanding extremely, massiveness, inordinateness, artificial expression
	Decoration	Glamour, exception, uniqueness, luxury, dissonance
	Experiment	Unrestricted freedom of expression, molt-character, humor, monstrosity, unexpectedness
Kim & Lee (2011)	Expansion	Massiveness, fullness, inordinateness
	Decoration	Decoration, accessories, prop
	Mixture	Mixture of items, mixture of pattern, mixture of sex
	Non-structure	Non-structure by outward silhouette, non-structure in silhouette
Lee & Roh (2012)	Exaggeration	Volume, distorted body, exaggerated silhouette, expansion of detail
	Decoration	Superposition of detail, sophisticated material expression, colorful color
	Fusion	Mixture of styles, mixture of period
	Fantasy	Children's story of imagination, fantastic, surrealism
	Experimental element	Heterogeneous material bond
Kim & Yoo (2015)	Fusion	Fantastic color, new material texture, ambiguity
	Decoration	Excessive decoration, variety of line, irregular structure, decadence
	Exaggeration	Changes in material properties, modulation of space, deformation of the object, infliction of colors and materials
	Humor	Figurative, symbolic, social criticism, playful decorations
	Duplication	Parallel, cycle and repetition

자된 수공예 장식을 사용하는 장식성, 비실재적이거나 상상, 극대화된 이미지, 초현실주의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는 환상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

Jeong and Jung(2009)은 버슬 또는 크리놀린 등을 이용한 조형성, 회화적 표현, 실험성, 신체 형태를 무시한 실루엣, 화려한 색상, 소재의 혼합된 과장성, 멀티에스닉은 히피·보헤미안적 이미지, 대자연 색감 음양오행 기본색, 전통 문양, 기하학적인 문양, 동양적 이미지, 프린지 자수, 패치워크 디테일 등의 사용으로 표현되었으며 금속성 소재, 광택, 실버 또는 골드의 단일 색채, 튜브 또는 헤어 장식, 부피감, 드라마틱한 몸의 굴곡 표현, 대담한 조형성을 표현하는 퓨처리즘, 강렬하고 짙은 색채, 리본 장식, 성숙하고 섹시한 이미지의 엘레강스, 밝은 파스텔 계열 색채, 쉬폰 또는 레이스의 가벼운 소재, 프릴이나 러플 장식, 각테일 드레스 스타일, 어리고 귀여운 이미지의 표현인 로맥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Kim and Kim(2011)은 극도로 확대하고 육중함, 과도함, 인위적인 표현을 통해 나타나는 과장성, 화려하고 과격적이며 독특하고 부조화를 통한 장식성, 무제한적 표현의 자유와 탈피성, 유희성 기괴함, 의외성을 표현하는 실험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

다고 하였다.

Kim and Lee(2011)는 형태와 부피가 돌출, 팽창되고 넓이와 길이의 착시를 나타내며, 육중함, 풍만함, 과도함의 느낌이나 이미지인 확대과장성, 디테일선의 변화, 화려함, 호화로움, 강조 등의 느낌이나 이미지인 장식성, 다양함, 복잡함, 독특함 등의 느낌이나 이미지의 혼합성, 왜곡 등으로 인해 좌우의 무게감을 다르게 처리하거나 구조적 디자인이나 실루엣을 의도적으로 비대칭적으로 나타내는 비구조성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

Lee and Roh(2012)는 신체의 왜곡된 형태감을 강조하고, 일반적인 곡선을 이탈한 새로운 시각을 주는 확대성, 확장된 러플의 표현으로 특유의 위트를 포현하고, 클래식적인 표현을 위한 수공예적 디테일을 과다 사용하는 장식성, 현대적 이미지와 오리엔탈리즘을 표현하는 퓨전성, 의상에 상상의 이미지를 실현하여 동화적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환상성, 기술과 패션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사과의 확장을 주는 실험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

Kim and Yoo(2015)는 환상적인 색채와 새로운 소재 질감, 이중 결합적, 병렬적 연결에 의한 충돌적인 구조 등으로 표현되는 혼성적 맥시멀리즘, 복잡한 구조나 난해함과 더불어 장식

Table 2. Characteristics of mximalism mentioned in previous studies

Researchers	Characteristic	Overall characteristic
Park(2008)	Fusion	Exaggeration
	Enlargement	
	Decoration	
	Fantasy	
Jeong & Jung(2009)	Exaggerated	Fusion
	Multi-ethnic	
	Futurelism	
	Elegance	
	Romantic	
Kim & Kim(2011)	Expansion	Experiment
	Decoration	
	Experiment	
Kim & Lee(2011)	Expansion	Romantic
	Decoration	
	Mixture	
	Non-structure	
Lee & Roh(2012)	Exaggeration	Experiment
	Decoration	
	Fusion	
	Fantasy	
	Experimental element	
Kim & Yoo(2015)	Fusion	Humor
	Decoration	
	Exaggeration	
	Humor	
	Duplication	
		Duplication

적, 관능적, 환상적 요소가 접목되면서 과도한 장식과 다양한 선으로 표현되는 장식적 맥시멀리즘, 소재의 속성 변화와 공간의 변조, 물체의 변형, 색상과 재료의 과함으로 보여지는 과장적 맥시멀리즘, 비유적, 상징적, 사회 비판적 시각을 동반한 정치적 의식을 표현하거나 반언어적이고 유머러스한 시각의 개념과 형식으로 나타나는 유희적 맥시멀리즘, 복제, 병렬, 반복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새로운 감성으로 표현하는 복제적 맥시멀리즘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밝히는 맥시멀리즘의 유형과 표현방법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맥시멀리즘 패션의 유형에 대하여 공통으로 추출된 표현을 바탕으로 오늘날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패션 디자인에 적극 수용되는 맥시멀리즘 패션의 특성을 과장성, 장식성, 퓨전성, 환상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과장성은 형태의 확대와 왜곡, 중첩과 과장 등을 포함하는 특성으로, 장식주의적 조형미와 수공예적인 화려한 장식 등에 포함되는 특성은 장식성으로 명명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혼합성, 에스닉의 다양함과 이를 이용한 맥스 앤 매치 등을 포함하는 특성은 퓨전성으로 분류하고, 유희적 조형미와 크로스 매치, 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특성은 환상성으로 정의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선행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맥시멀리즘 패션의 유형을 토대로 본 연구의 맥시멀리즘의 표현 유형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3. 남성복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표현 특성

본 연구에서는 맥시멀리즘 패션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분류된 과장성, 장식성, 퓨전성, 환상성, 퓨처리즘, 엘레강스, 로맨틱, 복제성, 유희성, 실험성, 혼합성, 비구조성의 12가지의 맥시멀리즘의 표현특성에서 공통으로 추출된 표현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패션의 표현 특성을 과장성, 장식성, 퓨전성, 환상성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1. 과장성

예술에서 과장적 맥시멀리즘의 표현은 규모가 크고 중복되어지며 소재의 변화와 공간의 변조, 물체의 변형, 색상과 재료의 과함으로 보여진다. 궁극적으로는 극단적인 스타일과 과도함으로 역동적 효과와 함께 환상적인 느낌을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의복 실루엣의 확대와 다양한 아이템의 중복에 의한 과장적 형태 표현, 용도가 다른 아이템들의 구조 변경과 결합을 통한 착장 방법의 변조, 과도한 색상으로 표현되었다(Kim & Yoo, 2015).

Fig. 1은 Juun J의 2012 F/W 컬렉션의 의상이다. 전체적인 실루엣이 확장되어 있고, 어깨와 모자는 과도하게 부풀려져 강한 남성기가 느껴진다. Thom Browne의 2012 F/W 컬렉션의 의상인 Fig. 2는 여러 색상의 체크무늬가 아이템마다 겹겹이 중첩되어 복잡함을 보여준다. 또한 상의 실루엣의 전체적인 확대와 어깨에 과한 과장으로 남성들의 강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다. Fig. 3은 Siibling의 2013 F/W 컬렉션의 의상으로 상의의 부피와 길이의 확대로 디자인되었으며 소매길이의 연장과 거대한 병어리장갑, 모자의 연출을 통해 과장성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패션에서 나타나는 맥시멀리즘은 의복을 포함하여 액세서리에서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Thom Browne의 2014 F/W 컬렉션의 의상은 화려한 패턴과 체크무늬의 조합으로 화려함을 나타내고, 실루엣의 과장으로 조형물처럼 보이는 아방가르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Fig. 4). Fig. 5는 Christopher Shannon의 2013 S/S 의상으로 일반적인 실루엣에서 벗어나 몸의 형태를 알 수 없는 과장된 형태로 나타났다. 옷의 이미지보다는 새를 연상시키는 패턴의 중첩으로 형태의 과장을 표현하였다. Fig. 6은 Walter Van Beirendonck의 2012 S/S 작품으로 사람의 형태를 알 수 없는 원의 형태로 나타내어 과장성을



Fig. 1. Ready-to-wear Juun J 2012 F/W. <http://www.vogue.co.uk>



Fig. 2. Ready-to-wear Thom Browne 2012 F/W. <http://www.vogue.co.uk>



Fig. 3. Ready-to-wear Sibling 2013 F/W. <http://www.vogue.co.uk>



Fig. 4. Ready-to-wear Thom Browne 2014 F/W I. <http://www.firstview.com>



Fig. 5. Ready-to-wear
Christopher Shannon 2013 S/S I. <http://www.vogue.co.uk>



Fig. 6. Ready-to-wear
Walter Van Beirendonck 2012 S/S. <http://www.vogue.co.uk>



Fig. 7. Ready-to-wear
Sibling 2013 S/S. <http://www.vogue.co.uk>



Fig. 8. Ready-to-wear
Craig Green 2013 F/W. <http://www.vogue.co.uk>

표현하였다. Sibling의 2013 S/S 작품에서도 얼굴 부분의 과장된 형태의 가면을 사용함으로써 실루엣의 파괴와 함께 과장성을 표현하였다(Fig. 7). Fig. 8은 Craing Green 2013 F/W의 작품으로 조각난 나무판자를 얼굴과 상체에 부착하여 조형물처럼 보이도록 하여 전위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남성복 패션에서의 과장성은 아우어글래스 실루엣보다 스트레이트 실루엣과 벌크 실루엣의 형태가 많이 보여지고 있으며, 의복이나 악세서리를 확대하거나 실루엣의 과장, 디테일의 확대, 의복 아이템을 겹치거나 중복하여 거대한 조형미를 표현하였다.

3.2. 장식성

인간은 언제나 의복에서 편안함보다는 장식을 더 선호하였으며 장식을 함으로써 미를 통한 행복한 심리적 감정을 느끼게 되며, 복식에서의 장식은 의복은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의복 내부에 장식적 디자인이 첨가되면 의복 전체의 독창적인 면을 보완해 줄뿐만 아니라 미적 표현을 더해 의복의 가치와 개성을 높여준다고 하였다(Lee, 2008).

KTZ의 2014 S/S 컬렉션의 의상인 Fig. 9는 스티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수공예 작업으로 장식한 화려한 머리장식과 재킷을 조합하여 복잡한 구조의 전위적인 맥시멀리즘 패션을 표현하였다. Nasir Mazhar의 2016 S/S 컬렉션의 의상은 캐주얼한 의상에 마스크, 목걸이, 모자 등의 사용으로 남성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내어 전위적인 맥시멀리즘 패션을 표현하였다(Fig. 10). Fig. 11은 Yohji Yamamoto 2013 F/W 컬렉션 의상으로 실루엣이 과장된 수트에 어울리는 컷수염을 제작하여 장식함으로 키치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Christopher Shannon 2013 S/S의 작품도 종이 소재로 만든 가발을 통해 전체적으로 엔드위홀이 떠오르게 만들며 인형들을 목걸이로 만들어 유희적인 표현을 통해 맥시멀리즘의 장식성을 표현하였다(Fig. 12).



Fig. 9. Ready-to-wear
KTZ 2014 S/S. <http://www.vogue.co.uk>



Fig. 10. Ready-to-wear
Nasir Mazhar 2016 S/S. <http://www.vogue.co.uk>



Fig. 11. Ready-to-wear
Yohji Yamamoto 2013 F/W. <http://www.vogue.c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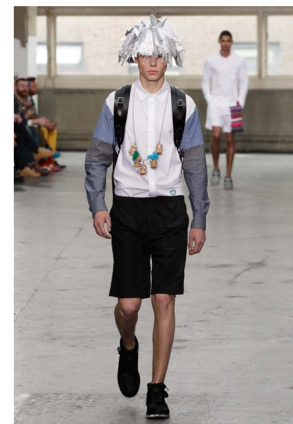


Fig. 12. Ready-to-wear
Christopher Shannon 2013 S/S II. <http://www.vogue.co.uk>



Fig. 13. Ready-to-wear Thom Browne 2012 S/S. <http://www.vogue.co.uk>



Fig. 14. Ready-to-wear Thom Browne 2014 F/W II. <http://www.vogue.co.uk>



Fig. 15. Ready-to-wear Walter Van Beirendonck 2014 F/W. <http://www.vogue.com>



Fig. 16. Ready-to-wear Walter Van Beirendonck 2016 S/S. <http://www.vogue.com>

Fig. 13은 Thom Browne의 2012 S/S 컬렉션 의상으로 자켓 위에 자켓과 같은 아이템의 중첩으로 맥시멀리즘을 표현하였으며, 술이 달린 모자를 통해 스탠드의 이미지를 나타내어 유희적인 느낌을 연출하였다. Thom Browne의 2014 F/W 컬렉션 의상도 정교하게 제작된 코끼리 가면을 통해 장식적인 맥시멀리즘의 특성을 표현하였다(Fig. 14). Fig. 15은 Walter Van Beirendonck의 2014 F/W 컬렉션의 의상으로 캐주얼한 이미지의 디자인에 생일 케이크에서 모티브를 딴 머리장식을 조합하여 화려하고 창의적인 패션을 표현하였다. Walter Van Beirendonck의 2016 S/S 컬렉션의 의상인 Fig. 16은 수공예 작업으로 화려한 헤어장식을 통해 사마귀의 느낌을 연출하였으며 수트의 라펠과 화려한 목걸이 장식으로 해학적 맥시멀리즘을 표현하였다.

남성복 패션에서의 장식성은 화려한 수공예적 기법을 적용한 럭셔리한 장식을 사용하거나 과장된 디테일을 반복적인 나열을 통하여 나타내고, 복잡한 무늬,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요소를 장식적으로 도입하였다. 또한 남성의 특징인 강인함을 나타내기 위한 힘이 있는 하드한 소재의 사용이 많이 나타나며, 다양한 소재와 색상의 믹스 앤 매치를 통해 맥시멀리즘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3.3. 퓨전성

맥시멀리즘 패션에서의 퓨전성은 두 가지 이상의 요소들이 각각 특성을 지녀 서로 대비되지만 그로인해 감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특성을 의미하며, 다양함과 복잡함, 독특함 등의 이미지로 여러 스타일 등이 복잡하게 섞여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퓨전성은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대의 조화 등의 서로 상반되는 요소들의 믹스를 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어서 다양성을 요구하는 현대 패션계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Park, 2008).

Fig. 17은 KTZ의 2012 S/S 컬렉션 의상이다. 아프리카 소

수 민족을 연상시키는 귀걸이와 티셔츠의 장식품, 1970년대 후반 런던에서 유행하던 핑크패션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복잡한 시대와 스타일의 퓨전을 보인다. Fig. 18은 Junya Watanabe의 2016 S/S 컬렉션 의상으로 목걸이와 나무 막대기, 얼굴형상의 방패를 통해 인디언 부족을 연상케 하였으며 현대적인 모자, 셔츠, 바지를 통해 시대적 퓨전성을 표현하였다. Xander Zhou의 2014 F/W 컬렉션 의상도 아랍인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모자와 락스를 통해 동양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의복 아이템인 재킷과 셔츠, 바지에서 서양의 이미지를 나타내어 동서양의 퓨전을 보인다(Fig. 19). Walter Van Beirendonck의 2015 S/S 컬렉션 의상으로 화려한 색상과 다양한 소재의 믹스 앤 매치를 통해 과거의 이미지를 나타낸다(Fig. 20). Fig. 21은 Agnes B의 2012 S/S 컬렉션 의상으로 아테네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화관과 락스 매어 과거와 동양의 이미지를 나타내었으며, 장식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해 단색을 사용하여 퓨전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Baja East의 2015 S/S 컬렉션 의상인 Fig. 22은 여러 지역의 에스닉 풍의 스타일과 문양, 현대적인 일반 셔츠의 조합으로 퓨전을 보인다. Fig. 23은 Walter Van Beirendonck의 2015 S/S 컬렉션 의상으로 현대적인 디자인의 슈트에 동양의 느낌을 연출하는 꽃과 도깨비가 그려진 부채를 매치하여 동서양의 이미지가 믹스된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또한 Issey Miyake Men의 2016 S/S 컬렉션 의상은 현대적인 디자인의 재킷에 동양적인 오비의 느낌을 주는 허리띠를 착용하였고, 원색의 매치와 동서양의 모티브를 담은 디자인을 통해 퓨전을 보인다(Fig. 24).

남성복 패션에 나타난 퓨전성은 전통과 현재, 동양과 서양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나타냈으며, 하나의 작품에 장르간의 구분을 없애고 다양한 매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

3.4. 환상성

맥시멀리즘 패션에서의 환상성은 기존 개념들의 한계나 제



Fig. 17. Ready-to-wear
KTZ 2012 S/S.
<http://www.vogue.c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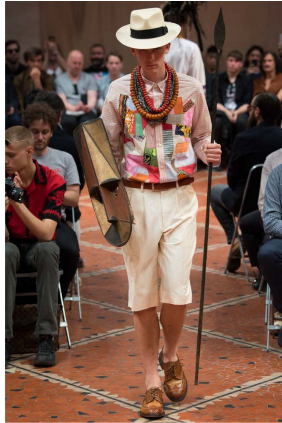


Fig. 18. Ready-to-wear
Junya Watanabe 2016 S/S.
<http://www.vogue.com>



Fig. 19. Ready-to-wear
Xander Zhou 2014 F/W.
<http://www.vogue.co.uk>



Fig. 20. Ready-to-wear
Walter Van Beirendonck 2015 S/S I.
<http://www.vogue.co.uk>



Fig. 21. Ready-to-wear
Agnes B 2012 S/S.
<http://www.vogue.co.uk>



Fig. 22. Ready-to-wear
Baja East 2015 S/S.
<http://www.vogue.co.uk>



Fig. 23. Ready-to-wear
Walter Van Beirendonck 2015 S/S II.
<http://www.vogue.com>



Fig. 24. Ready-to-wear
Issey Miyake Men 2016 S/S.
<http://www.vogue.co.uk>

약을 넘어서 디자인하는 것으로 건축과 그래픽 디자인에서처럼 열린 사고로 실용성보다는 어린이가 같은 상상력과 동화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로 그래픽디자인처럼 요란하게 유희적이고 영감이 풍부한 여러 다른 이미지들을 섞는 것을 수반하거나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Park, 2008).

Fig. 25는 John Galliano의 2012 S/S 컬렉션 의상으로 동화적 선장의 이미지를 표현하여 환상의 세상을 나타내었다. 화려한 색상의 사용과 깃털 장식한 화려한 모자를 통해 동화 속 세계의 환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Fig. 26은 Katie Eary의 2014 F/W 컬렉션 의상으로 디즈니월드의 미키마우스에 악마 캐릭터를 결합하여 키덜트적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특히 악마의 뿔을 연상시키는 헤어스타일이 동화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Man의 2015 S/S 컬렉션 의상은 해적왕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독특한 소재를 통해 머리카락을 표현하였다(Fig. 27). Fig. 28은 KTZ의 2015 S/S 컬렉션 의상으로 스파르타 시대의 군사의 이미지를 연출시킨다. 근육을 표현한 갑옷

으로 장난감 병사 같은 이미지를 통해 동화적으로 표현하였다. Walter Van Beirendonck의 2012 F/W 컬렉션 의상인 Fig. 29는 나무인형의 모습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인형과 같은 마스크, 같은 색상의 모자와 장갑에서 보여지는 원색의 색감, 독특한 재질, 다양한 소재의 믹스매치에서 초현실적 표현을 보여준다. Fig. 30은 Martine Rose의 2013 S/S 컬렉션 의상으로 하얀색 천으로 얼굴을 덮어 마네킹으로 보이게 연출하였다. 얼굴에도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였으며, 그 위에 덮인 천에도 메이크업이 되어 두 가지의 메이크업이 보이면서 기괴스럽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일으키는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Rick Owens의 2015 S/S 컬렉션 의상도 화장이라고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하얀색을 얼굴 메이크업과 손, 발, 몸에 칠해줌으로써 남성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괴물 같은, 다른 세계의 생명체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Fig. 31). Christopher Shannon의 2015 F/W 컬렉션 의상인 Fig. 32는 얼굴과 머리장식이 연결이 되어 있으며, 티셔츠에도 콜라주 기법으로 얼굴이 표현되어 기



Fig. 25. Ready-to-wear
John Galliano 2012 S/S.
<http://www.vogue.com>



Fig. 26. Ready-to-wear
Katie Eary 2014 F/W.
<http://www.vogue.co.uk>



Fig. 27. Ready-to-wear
Man 2015 S/S.
<http://www.vogue.co.uk>



Fig. 28. Ready-to-wear
KTZ 2015 S/S.
<http://www.vogue.co.uk>



Fig. 29. Ready-to-wear
Walter Van Beirendonck 2012 F/W.
<http://www.vogue.com>



Fig. 30. Ready-to-wear
Martine Rose 2013 S/S.
<http://www.vogue.co.uk>



Fig. 31. Ready-to-wear
Rick Owens 2015 S/S.
<http://www.firstvie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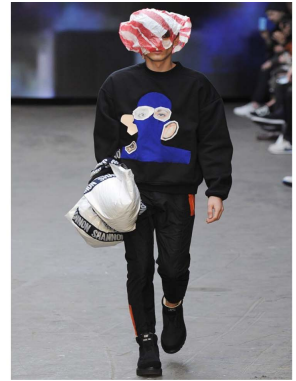


Fig. 32. Ready-to-wear
Christopher Shannon 2015 F/W.
<http://www.vogue.co.uk>

괴스러운 초현실주의적 표현을 보여준다.

남성복 패션에서 나타난 환상성은 기발한 상상력과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상상력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비정형적인 형태나 동화적인 이미지, 몽환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소재와 디테일을 사용하여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4. 결 론

현대는 지구촌의 세계화 즉 글로벌리즘, 하이브리드의 영향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 있으며 현대인들은 다양화, 개성화, 진문화에 대한 요구가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문화 예술의 혼합과 절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맥시멀리즘은 다문화시대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패션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2년에서 2016년까지 5년간 세계 4대 컬렉션에 발표된 남성복 중 시대적 트렌드 중 하나인 맥시멀리

즘의 표현이 나타난 작품들을 분석하여 표현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현 특성을 과장성, 장식성, 퓨전성, 환상성의 4개로 유형화하여 남성복디자인의 표현성을 알아보았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장성은 의복이나 악세서리를 확대하거나 실루엣의 과장을 통해 패션디자인의 개념에서 벗어난 극단의 전위성을 나타냈다. 과장성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보여 왔으며 S/S보다 F/W시즌에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었고, 어깨, 슬리브, 헴라인이나 햄라인 등 부분 디테일을 확장한 디자인을 통해 강한 남성미를 연출하였다.

둘째, 장식성은 화려한 수공예적 기법을 적용한 럭셔리한 장식을 사용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표현하는 도구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장식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유희적인 이미지를 나타냈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징이나 스티드 등의 금속 재질을 사용함으로 연출하였다.

셋째, 퓨전성은 전통과 현재, 동양과 서양의 구분을 없애고 하나의 작품에서 다양하게 표현했다. 소재나 색상, 실루엣 등의

믹스 앤 매치하여 다양한 시대와 전통이 이질적이면서 조화를 이루는 개성있는 디자인들을 선보였다.

넷째, 환상성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자유로운 상상력의 표현으로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디자인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동화적 상상을 일으키는 키덜트의 이미지부터 기괴적이고 파격적인 상상을 일으키는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다양한 시도의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여성복의 맥시멀리즘 표현은 여성적인 실루엣을 강조하는 과장성과 프릴, 러플 등의 곡선화 경향, 비치거나 빛나는 소재의 쉬폰, 레이스의 사용을 통해 여성성이 강조되어 나타났다. 반면 남성복에서는 남성성이 강조된 실루엣, 장식, 소재 등이 나타났으며, 본 연구를 통해 최근 남성복 디자인의 장식적이고 과도한 표현에 관련한 변화들을 맥시멀리즘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새로운 관점과 패션 스타일의 기획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범위를 최근 5년으로 한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으로 향후 연구범위와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남성복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Jeong, S. H., & Jung, H. J. (2009). Characteristic to express maximalism fashion appearing in fashion collection.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1(1), 155-167.
- Kang, H. M. (2015). A study on the maximalism in modern fashion knit.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Knit Design*, 13(3), 91-99.
- Kim, H. J., & Kim, H. K. (2011). A study on make-up designs based on maximalist characteristics: Focusing on overseas collections from the 2005 S/S to 2011 F/W seas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1(3), 99-115.
- Kim, H. J., & Lee, E. S. (2011). The expression of fashion design using a maximalism character.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3(1), 7-16.
- Kim, J. H., & Yoo, Y. S. (2015).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aximalism in men's wea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5(5), 1-13. doi:10.7233/jksc.2015.65.5.001
- Kim, J. Y. (2007). *A study on the interior design reflection style of maximal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Kim, Y. J., & Lee, K. H. (2000). A study on sensibility of formative properties in clothing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4(7), 976-986.
- Lee, H. J. (2008). *A study maximalist hairstyle since 2000*.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Lee, J. H., & Roh, Y. S. (2012). A study of the formative character of maximalism shown in the works of Alexander McQue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2(6), 165-181. doi:10.7233/jksc.2012.62.6.165
- Lee, J. H., & Roh, Y. S. (2013).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 of maximalism shown in the works of Jean Paul Gaultier: Focusing on the haute couture collections.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16(4), 205-214.
- 'Maximalism'. (n.d.). *Doopedia*. Retrieved June 18, 2016, from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37929
- Park, E. K. (2008). A study on maximalism in the modern fashion: Focused on the 200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8(3), 1-18.
- Park, E. K. (2012). A comparative study on minimalism and maximalism in the 2000s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2(8), 100-117.
- 'Ready-to-wear Agnes B 2012 S/S'.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2/mens/agnes-b/full-length-photos/gallery/637943>
- 'Ready-to-wear Baja East 2015 S/S'.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5/mens/baja-east/full-length-photos/gallery/1238563>
- 'Ready-to-wear Christopher Shannon 2013 S/S I'.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3/mens/christopher-shannon/full-length-photos/gallery/799539>
- 'Ready-to-wear Christopher Shannon 2013 S/S II'.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3/mens/christopher-shannon/full-length-photos/gallery/799531>
- 'Ready-to-wear Christopher Shannon 2015 F/W'.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5/mens/christopher-shannon/full-length-photos/gallery/1306389>
- 'Ready-to-wear Craig Green 2013 F/W'.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3/mens/craig-green/full-length-photos/gallery/897341>
- 'Ready-to-wear Issey Miyake Men 2016 S/S'.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6/mens/issey-miyake-men/full-length-photos/gallery/1429591>
- 'Ready-to-wear John Galliano 2012 S/S'. (n.d.). *Vogue.com*.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2-menswear/john-galliano/slideshow/collection>
- 'Ready-to-wear Junya Watanabe 2016 S/S'. (n.d.). *Vogue.com*.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menswear/junya-watanabe/slideshow/collection#5>
- 'Ready-to-wear Juun J 2012 F/W'.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2/mens/juun-j/full-length-photos/gallery/717695>
- 'Ready-to-wear Katie Eary 2014 F/W'.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4/mens/katie-eary/full-length-photos/gallery/1089920>
- 'Ready-to-wear KTZ 2012 S/S'.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2/mens/ktz/full-length-photos/gallery/673235>
- 'Ready-to-wear KTZ 2014 S/S'.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4/mens/ktz/full-length-photos/gallery/991480>
- 'Ready-to-wear KTZ 2015 S/S'.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5/mens/ktz/full-length-photos/gallery/1189396>
- 'Ready-to-wear Man 2015 S/S'.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5/>

- mens/man/full-length-photos/gallery/1188861
- 'Ready-to-wear Martine Rose 2013 S/S'.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3/mens/martine-rose/full-length-photos/gallery/798871>
- 'Ready-to-wear Nasir Mazhar 2016 S/S'.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6/mens/nasir-mazhar/full-length-photos/gallery/1418157>
- 'Ready-to-wear Rick Owens 2015 S/S'. (n.d.). *Firstview.com*.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5&collection=39298&image=5565872#.V5tcWRskqUk
- 'Ready-to-wear Sibling 2013 F/W'.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3/mens/sibling/full-length-photos/gallery/898276>
- 'Ready-to-wear Sibling 2013 S/S'.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3/mens/sibling/full-length-photos/gallery/799345>
- 'Ready-to-wear Thom Browne 2012 F/W'.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2/mens/thom-browne/full-length-photos/gallery/719175>
- 'Ready-to-wear Thom Browne 2012 S/S'.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2/mens/thom-browne/full-length-photos/gallery/638075>
- 'Ready-to-wear Thom Browne 2014 F/W I'. (n.d.). *Firstview.com*.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67&collection=38033&image=5363595#.V5thGhskqUk
- 'Ready-to-wear Thom Browne 2014 F/W II'.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4/mens/thom-browne/full-length-photos/gallery/1098922>
- 'Ready-to-wear Walter Van Beirendonck 2012 F/W'. (n.d.). *Vogue.com*.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2-menswear/walter-van-beirendonck/slideshow/collection#33>
- 'Ready-to-wear Walter Van Beirendonck 2012 S/S'.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2/mens/walter-van-beirendonck/full-length-photos/gallery/636785>
- 'Ready-to-wear Walter Van Beirendonck 2014 F/W'. (n.d.). *Vogue.com*.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menswear/walter-van-beirendonck/slideshow/collection#3>
- 'Ready-to-wear Walter Van Beirendonck 2015 S/S I'.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5/mens/walter-van-beirendonck/full-length-photos/gallery/1198358>
- 'Ready-to-wear Walter Van Beirendonck 2015 S/S II'. (n.d.). *Vogue.com*.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5-menswear/walter-van-beirendonck/slideshow/collection#5>
- 'Ready-to-wear Walter Van Beirendonck 2016 S/S'. (n.d.). *Vogue.com*.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menswear/walter-van-beirendonck/slideshow/collection#37>
- 'Ready-to-wear Xander Zhou 2014 F/W'.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4/mens/xander-zhou/full-length-photos/gallery/1089512>
- 'Ready-to-wear Yohji Yamamoto 2013 F/W'. (n.d.). *Vogue.co.uk*. Retrieved June 24,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3/mens/yohji-yamamoto/full-length-photos/gallery/906468>
- Yoo, H. S., Yoon, J. A., & Lee, Y. H. (2015). Kitsch features expressed in contemporary men's collection. *Journal of the Korean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7*(2), 11-25.

(Received 8 August 2016; 1st Revised 28 August 2016;
2nd Revised 20 September 2016; 3rd Revised 21 September 2016;
Accepted 10 October 2016)